

부 고

마리아 그라치아 MARIA GRATIA 수녀 ND 5666



마리아 그루트-베르닝 Maria GROOT-BERNING

독일,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

출생:	1934 년 7 월 21 일	프레든 인근 그로세마스트
서원:	1964 년 8 월 15 일	코스펠드
사망:	2026 년 9 월 20 일	코스펠드, 안네타 수녀원
장례:	2026 년 9 월 24 일	코스펠드, 수녀원 묘지

마리아 그루트-베르닝은 부모인 게르하르트 그루트-베르닝과 그의 아내 요한나(처녀명 펠트브라크)의 사랑 어린 보살핌 속에서 다섯 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다. 부모님은 농장을 운영했다. 마리아는 그로세마스트에 있는 가톨릭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다녔으며, 1950 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부모님의 농장에서 일을 돕다가, 1958 년부터 1959 년까지 프레든에 있는 예수 성심 수녀원에서 조리 견습생으로 채용되었다. 그곳에서 가정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 당시 수녀원장은 추천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루트-베르닝 양은 언제나 정직하고 친절하며, 어떤 업무라도 기꺼이 맡아 수행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루트 베르닝 양을 추천할 수 있으며, 그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예수 성심 수녀원에서의 시간을 마친 후, 마리아는 1961 년 10 월 우리 수녀회에 입회할 때까지 2 년 동안 집에서 머물렀다. 1962 년 8 월 18 일, 서원을 발하고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1964 년 첫 서원을 마친 후에는 코스펠드의 피우스 대학으로 와서 1969 년 종신 서원 준비를 위해 로마로 떠나기 전까지 가사 관리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곳에서 7 월에 종신 서원을 받았다.

그 후 수녀는 뷔렌과 겔젠키르헨의 립프라우엔슈티프트에서 사도직을 수행했다. 파더본의 마인베르크 연구소에서 가사 관리자로서의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았으며, 1988 년에는 강사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는 33 년 동안 겔젠키르헨에 있는 립프라우엔슈티프트 노인 요양원의 주방과 다른 분야에서 온 힘을 다해 기쁨으로 일해 왔으나,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도직을 떠나야만 했다.

수녀는 2008 년에 안네타 수녀원으로 이사하여 살루스 병동의 가사 업무를 도왔다. 수녀의 명랑하고 밝은 성격, 친절함, 우리와 어울릴 때 보여준 단순한 태도는 모범이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사소통이 점점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족들의 방문을 고대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수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다. 야외 활동을 즐겼으며, 몸이 허락하는 한 보행기를 이용하여 공원을 거닐며 휠체어를 탄 한 동료 수녀를 동반하곤 했다. 친숙하면서도 가슴 따뜻한 광경이었다.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는 환한 미소를 지녔고, 언제나 반짝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대화를 나눌 능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따뜻함과 애정을 베풀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며 기력은 점점 쇠약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수녀와의 모든 만남은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시간이었다.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는 우리 간호 및 돌봄 직원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았으며, 동료 수녀들의 지지를 받았다.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가 아직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라티아 수녀님,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천국이 수녀님한테 찾아올 거예요.”

한 전직 동료는 수녀의 사망 소식에 이렇게 반응했다. “한 친절한 영혼이 고향으로 떠났네요.”